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산업대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0대 업종 디지털 전환"

〈자동차·조선·철강·섬유·석유화학·에너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미래형 산업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글로벌 G5(주요 5개국)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아너스홀에서 '산업대전환' 공약을 통해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시대를 열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대전환의 그루터기를 만들어 산업대전환의 환경과 여건부터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생태계를 혁신해 미래산업으로 나아가는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산업대전환은 ▲디지털 전환으로 주력 제조업 혁신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중립 산업 전환 ▲빅(Big)10 산업 프로젝트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및 참여혁신연계망 구축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등 7대 공약으로 이뤄졌다.

'빅10 산업 프로젝트' 등 7대 공약 제시
"수출 1조弗, 국민소득 5만弗 시대 열 것"

이 후보는 먼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해 센서·사물인터넷(IOT)·로봇으로 제조공정을 스마트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소제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며 자동차·조선·철강·섬유·석유화학·에너지 등 10대 업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종 내, 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사업 지원과 협업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협업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족한 인적·물적·기술 역량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고속도로에 기반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빅10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5대 슈퍼클러스터(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구축과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로봇, 그린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빅10 산업' 역량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자금·규제의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산학연 파트너십 운영 확대, 빅10 산업 모태펀드 조성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한 빅10 산업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인재 양성과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을 비롯해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디지털 무역협정 활용 등 새로운 디지털 혁신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기도 7대 지역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제3국립현충원 신축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뉴시스

"경기~서울 GTX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광역교통망 확충, 미래 성장동력 구축, 제3국립현충원 신축 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역 교통망 확충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D·E·F 노선 신설안을 재차 확인하고 경기도 전역에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교통 편리를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E 노선과 수도권 거점 도시를 한바퀴 보는 순환선인 F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A·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GTX 이외의 조밀한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확충해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촉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서울~동두천~연천 남북 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경전철 위례 · 과천선 안양 연장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지방도 309호선(과천대로) 지하화 ▲평택~안성~부발 단선전철 신설 등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미연결구간 완성 조기 추진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경기도에 4차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융복합 R&D(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제조산업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3국립현충원 신축 등 7대 공약 발표
"경기도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편리 증진"

윤 후보는 "수도권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미개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지역에서는 신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도내 미개발·낙후 지역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 4차산업 R&D 컴플렉스를 구축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윤 후보는 각 권역별 산업 특성과 인근 성장동력 단지를 연계해 하나의 혁신단위로 묶어 구조 고도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가 연결된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 LCD 산단과 양주테크노밸리가 결합된 디스플레이·ICT(사물인터넷) 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 등을 활용한 K-컨텐츠 클러스터 ▲용인·안성·이천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기존 산업단지의 재생과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게이머들의 불신 대상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와 저변 확대를 위한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 핵심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과학기술 5·5·5 성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AI·반도체 산업 육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에 대해 "제 과학기술 5·5·5 공약이 진짜다. 제 것을 베낀 이 후보는 짝퉁"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서 "진영과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과학과 실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전 세계 3대 메가 트렌드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성큼 다가온 4차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을 꼽았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5·5·5 공약에 대해 미·중 패권 전쟁의 중심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진단하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해, 삼성전자급의 대기업을 5개 보유하면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견주는 G5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부총리 등 정부조직 개편 제시
"진영·이념 정치 벗어나 과학·실용 정치로"

그러면서 안 후보는 "우리가 압도적인 1위는 아니지만 1등 그룹에 속해있는 기술을 공략해야 한다"며 디스플레이·원전·수소·바이오·AI 반도체·콘텐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다음 대통령의 임무가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임기에 감염병이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감염병으로부터 탈출하는 나라만이 세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정의를 '융합혁명'이라고 내리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위해 장애물을 없애고 연구비를 지원했다"며 "한국은 규제하나 없애는 데 4년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분야끼리 벽을 쌓지 않고 융합 가능한 환경을 가진 나라 ▲과정에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은 기회를 주는 나라 ▲정부와 정치인이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질문할 정도의 소양과 상식을 가진 나라가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번창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안 후보는 앞서 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도입 등 정부조직 개편 ▲과정 위주 과학기술 정부 투자 ▲국책연구소 연구원 확충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네거티브 규제 방식 혁신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안철수 정부야말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여의도 정치를 바라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동굴 안의 개구리 같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라도 본다. 저는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